

씨 뿌려 이삭 거둔 '농업사학계'의 거두

《조선후기 농업사연구》 증보판 펴낸 김용섭 교수의 학문세계

이호철

경북대 교수·농업경제학

김용섭교수의 이 역작은

세계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까지

아직도 신선한 충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암울한

50년대에 '동학란' 연구로

출발한 저자의 탐험은 조선후기

농민들의 움직임은 한국사의

내적 발전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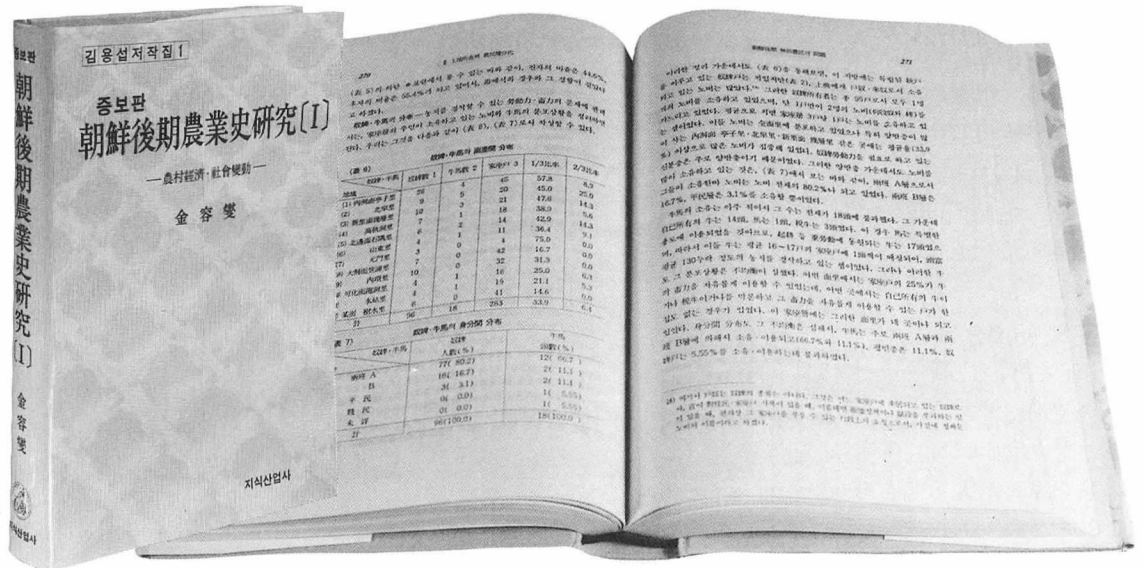
철저한 사료비판과 실증적

분석의 결산으로 구축된

저자의 학문세계는 우리 학계에

커다란 화두와 업적으로

남아 있다.



최근, 김용섭교수의 역작 《조선후기 농업사연구(1)》가 크게 증보되어 다시 출간되었다. 주지하는 바처럼 1976년에 초간된 이 책은 조선후기 연구자, 아니 세계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있어 아직도 신선한 충격으로 기억되어 왔다. 한국사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 책의 내밀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치기어린 미숙한 농업사학도였던 나에게 이 순진한 호기심이야말로 바로 일생을 건 학문의 지침이 되었던 셈이다. 암울한 50년대에 처음 '동학란' 연구로 출발한 저자의 탐험은 조선후기 농민들의 움직임을 한국사의 내적 발전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중세사회 해체과정을 농민층 분해란 관점에서 규명하려는 그의 새로운 시도는 양안(量案)과 호적의 분석을 통하여 속속 증명되었다. 이러한 그의 도전은 조선사회정체론에 젖어 있던 당시 학계에 새로운 충격으로 작용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조선후기의 농지소유 분석

이제 증보판 《조선후기 농업사연구(1)》을 초판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그 면모를 살펴보자. 이 책은 4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먼저 제1부는 정조 말년의 '웅지진농서'들을 분석한 것이며, 제2부는 조선후기의 여러 '양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또 제3부는 주로 궁방전 소작농민들의 경제와 그 성장에 대해, 그리고 제4부는 신

분제의 변동을 농지소유와 함께 분석할 결과이다. 저자가 힘들여 증보하거나, 새로 추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주논문인 '양안의 연구'는 새로운 자료로 크게 보충되었다. 원래 이 논문은 양안(토지대장)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起主)들의 토지소유와 농가소득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경제사 연구수준을 크게 높인 바 있다. 이 증보판에서 저자는 종래의 '회인양안' 대신 새로 '경상도 대구부 조암면 양안(1720)'을 추가하여, 이 3양안을 전산처리하였다. 그 결과 저자는 양반층의 소유 규모가 평·천민층보다 많았지만, 양반보다 우월한 평·천민층의 기주도 상당히 많았음을 증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양안상의 농가소득을 추정하였다. 이 상에서 저자는 조선후기의 농지소유와 농가소득을 분석함으로써 '광범위한 농민층 분해 및 해체과정'이란 종전과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외에도 저자는 '고부면 성포면 양안(1791)'을 분석함으로써 호남지방 농민층 분해의 한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농민전쟁의 발원지인 이곳에 군총제와 정액제란 가혹한 전세제도가 강요되어 수많은 진전(陳田)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묵힌 토지에 늘 세금이 부과(白地徵稅)되어, 과세자(지방관청)와 납세자(농민)간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밝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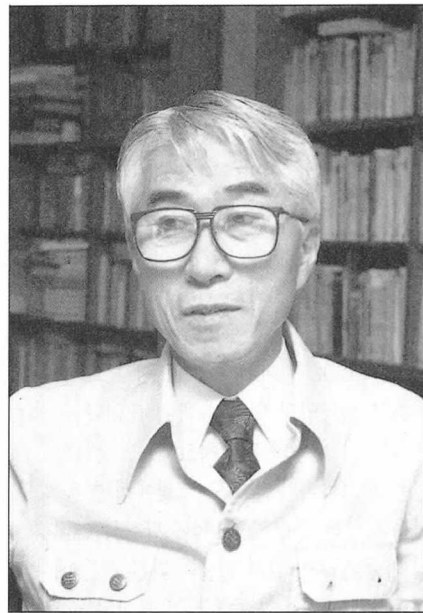
한편 '임천군 가좌책(1854)'의 분석은 당시의 무전농민 문제를 분석한 소중한 연구이다. '가좌책'은 호적대장과 유사하지만 그 작성목표가 군현 수령의 통치의 참고를 위해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주민 실태가 그대로 반영되고, 또 농촌 경제사정을 파악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자료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소작지가 전체의 61.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토지소유와 노동수단(노비와 우마)의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아울러 대다수가 무전농민이었던 이곳에서 더욱 철저한 농민층 분해가 이뤄졌다. 이처럼 금강 하류의 모시산업과 유통경제가 발달한 19세기의 임천군에서는 수많은 무전농민들의 소작과 임노동, 하역노동과 상업 등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무전농민의 문제 연구

한편, 저자는 '대구부 조암면 양안(1620)'과 호적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그 신분 구성의 변동과 농지소유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양안은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도서관 아사미 문고에 소장된 자료로서, 이 연구는 같은 시대의 양안과 호적대장을 서로 대조하면서 검토하는 새로운 분석법을 취하였다. 특히 조암면의 지주들은 임금노동(고공, 품앗이 노동, 고지노동, 일용노동)을 많이 이용하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보였다. 결국 유통경제가 발달하였던 이곳 주민들은 부의 축적이 다른 곳보다 용이하였을 뿐아

“글을 쓰면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자전수필집 《아버지의 산 어머니의 바다》 펴낸 윤형두 사장



윤형두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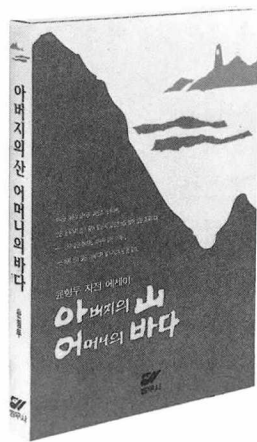
“글을 쓴다는 것이 저에게는 뒤를 돌아다 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재충전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작업인 셈입니다.”

최근 네번째 수필집 《아버지의 산 어머니의 바다》를 펴낸 범우사 윤형두사장(60,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은 남다른 감회를 갖는다. ‘올해가 회갑을 맞는 해인데다가 1956년 월간 《신세계》에 입사하면서 활자와 관계된 일에 뛰어들어 지 꼭 40년째이고, 내년은 자신이 청춘을 바친 범우사가 창립 3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사회에 진출한 이후 책을 내거나 책을 읽는 일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겐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일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일입니다.”

윤형두사장이 수필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72년 《수필문학》에 추천을 받으면서부터다. 그후 《책의 길 나의 길》 《넓고 넓은 바닷가에》 《사노라면 잊을 날이》 등 꾸준히 수필집을 출간. 91년에 제9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지난해에는 제8회 동국문학상을 받는 등 수필문단에서도 적지않은 평가를 받았다.

“학창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필을 선택하게 된 것은 시나 소설이 상상력이나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수필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실제 이야기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만지는 일이 힘이 들 때 수필을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라, 농촌사회의 분해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시대적인 물결을 통해 신분상승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곧 18세기 사회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방향과 관련되고 있었다.

끝으로, 18세기 ‘대구 부인동 동약과 사회문제’를 분석한 마지막의 논문도 주목되는 연구이다. 이 동약은 최홍원이 영·정조연간에 대구지방의 부인동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향약을 통해 부세문제를 해결한 다면서 선공고(先公庫)를 양반과 부민 위주로만 운영하였기 때문에 상민층의 최대부세인 균역세가 무시되었다. 그 때문에 부유층과 무전자, 양반층과 상민층간에 심각한 이해대립이 발생하였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부인동 동약의 노력은 수포가 되었다. 그리하여 향약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운동이 서얼을 중심으로 일어나 그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켜 갔다. 노비의 도망자가 늘고 상민층의 양반화가 늘어나서 이 마을 주민의 90%가 양반이 됨으로써, 동민의 갈등만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 책의 증보된 내용들은 기존연구를 더욱 철저한 실증성으로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용섭 교수의 학문적 탐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 책에 이어 《조선후기 농업사연구(2)》를 통해 농업기술을 분석하고 ‘이양법 및 견종법’의 보급이란 생산력 발전의 구도를 밝혀냈다. 또, 저자는 실학과와 개화기의 수많은 토지 개혁론을 분석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광무년간의 양전지계사업을 분석하였다. 한결 음 더 나아가 그는 한말 일제 식민지하의 지구경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자생적 근대화 길을 가던 조선사회가 일제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자본주의 체제로 이식되어 가기까지를 밝혀 나갔다. 이러한 저자의 연구성과는 결코 한사람의 학자가 달성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성과는 논문이나 저작의 수가 아니다. 대다수의 업적들이 저자 스스로가 앞서 개척한 새로운 분야에 걸쳐 있고, 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뚜렷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마 저자만큼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화제의

표적이 된 분은 우리 사학계에는 드물다고 생각된다. 저자의 연구 업적에 대한 학문적 토론은 크게 두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그 첫번째 분야는 바로 조선후기의 생산관계를 둘러싼 토론으로서 ‘기주’를 과연 ‘토지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또 기재양식이 불명확한 ‘양안’을 통해 당시 농가경제를 분석하는 일이 과연 의미있는지를 규명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철저한 사료비판과 실증분석의 결산

더구나 저자의 연구가 발전된 부분만 지나치게 드러내는 부조적 수법이란 비판과 우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영형 부농’을 둘러싼 토론들은 자본주의 맹아를 규명하는 일이 과연 우리의 역사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지적하였다. 또다른 비판들은 김용섭 교수가 앞장서서 파헤친 농업생산력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만병통치약격인 ‘이양법 보급’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함께 심지어 ‘견종법 보급’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측면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연구는 이와 같은 빠이는 문제제기를 수용해 가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완결적 구도를 구축하였다. 저자의 연구는 남보다 철저한 사료 비판과 실증적 분석의 결산이었다. 이처럼 단단한 바탕 위에 구축된 저자의 학문세계를 향해 수많은 토론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저자의 학문적 탐험이 얼마나 큰 화두와 업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졌는가를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러한 저자가 이제 스스로 깃을 접어 가다듬어야 할 시점을 맞아 우리 학계는 그가 제기한 화두들을 적극 받아들여 그야말로 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학문적 업적으로 재생산해야만 한다. 암울한 시대를 넘어 도달한 저자의 씨앗이 이제 한 이삭으로 열매 맺는, 정말 생산성 있는 만추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

전부 5부로 구성된 이번 수필집의 주요 모티프는 과거에 대한 반추가 주종을 이룬다. 출생에서부터 유년기, 청년기 시절을 추억하는 글을 통해 자기정체성에 대한 깊은 사색을 표현하고 있으며 주요 성장기를 보냈던 고향 여수의 바다와 햇살에 대한 기억, 부모님에 대해 회상하기도 한다.

“내 인생을 앞으로 걸어나가게 한 힘은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책에 수록된 추억들은 지나간 것에 대한 일방적인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정리인 셈이지요.”

고서수집에 열정을 가진 윤사장은 5만책 가량의 고서를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이기도 하다. 그가 이처럼 과거에 대한 체계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잠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수필집은 〈일본 북알프스〉 〈樂山樂友〉 〈산의 침묵〉 등 산에 대한 수필도 여러 편 수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출판사인협회 회장인 평화출판사 허창성 사장과 함께 해발 4101미터로 동남아 최고봉인 보르네오의 키나발루를 정복하고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를 등정하고 왔을 정도로 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자신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좋은 수필을 썼다는 말보다 범우사는 좋은 출판사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더 기분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윤사장은 80년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대학에서 출판학을 강의해 오고 있기도 하다. — 허연 기자